



○영주지부 사무실 앞. 좌측부터 심병철 총무, 김익현 지부장, 황만상 부지부장, 송은복 간사, 박유상 전지부장, 이원길 부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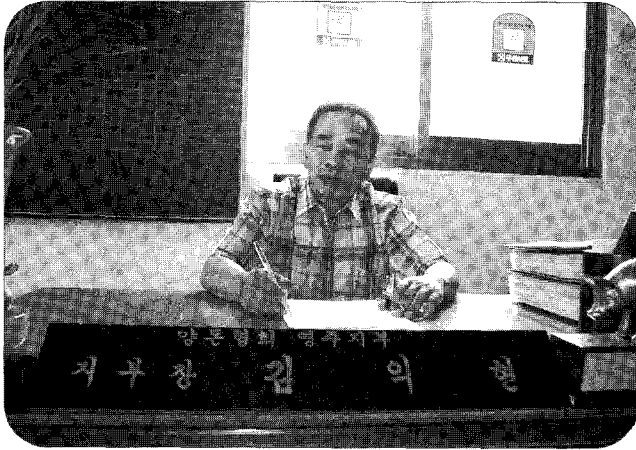
탄탄한 조직 구성과 건실한 운영으로 단합된

경북 영주지부

취재 : 정재은

경북 영주지부(김익현 지부장, 49세)는 전업규모의 농가들이 단합하여 탄탄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료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회원들이 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여 경영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인센티브를 지부에 적립하여 재정을 탄탄히 하여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들을 보조해 주고 있다.

영주지부는 각종 세미나, 시식회, 야유회 등을 통해 양돈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회원 서로간에 정을 쌓아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돈가 하락, 질병발생 등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있다. 그밖에도 전국시제를 적용하여 출하하고, 시의 협조 아래 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회원들 뿐 아니라 지역 양돈인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영주지부 김익현 지부장

전업규모 농가로 구성된 영주지부

영주지부는 1987년 7월 영주영풍지부 설립 이후 영주봉화지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9년 12월 8일 봉화지부가 독립되어 나가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제8대 김익현 지부장을 거치면서 영주지역 양돈인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영주지역은 100여 양돈농가가 4만8천두를 사육하고 있다. 이 중 24농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2만4천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회원들은 평균 사육두수 1,000두 정도의 전업농가가 대부분이며, 회원들의 사육두수가 영주지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부 임원 구성은 김익현 지부장을 중심으로 이원길·황만상 부지부장, 심병칠 총무, 권현의 감사, 박유상 전지부장을 비롯한 7명의 운영위원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부 회원들에게 이익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김익현 지부장과 임원들은 합심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한편, 영주지부는 탄탄한 재정 아래 원활하

게 각종 사업과 행사 등을 추진하면서 회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사료·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으로 회원들에게 이익제공 및 지부운영

영주지부는 97년 1월부터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료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지부에서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사료비가 절약되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오고 있다.

초창기에는 사료 톤당 3,000원을 지부 운영비로 적립했으나, 작년부터 회원들에게 톤당 2,000원을 환원해 주고, 나머지 1,000원/톤을 지부 운영비로 적립해 오고 있다. 이는 회원들은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얻고, 지부는 재정이 탄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김 지부장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곳을 객관적으로 비교·대조하여 회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료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부장은 “월례회비 등이 따로 없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없으며, 작년까지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20명에 대해 연회비, 자조금을 모두 지부에서 부담했고, 올해 들어 협회 연회비만 각자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지부는 보온각, 보온등, 니뿔, 파리구충제 등 각종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각종 기자재를 항상 비축해 두고 있어 회원들이 필요로 할 때 바로 공급해 주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약품의 경우에는 현재 회원 각자가 자유스럽게 구입하고 있는데, 박유상 제6대 전지부장 임기

동안에는 약품 공동구매 사업도 시행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세미나와 월례회의 개최 및 시식회 행사 전개

영주지부는 임원들이 1차 운영위원회를 거쳐 주요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난 후에 월례회의를 개최한다. 1달에 1번 둘째 주 목요일에 양돈농가들의 수준 향상과 컨설팅을 위해 사양 및 질병, 경영 관련 세미나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영주지부의 경우 세미나 교육을 통해 주간 관리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키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영주지부는 영주시 후원아래 지난 4월 30일에는 영주 중앙통 오거리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김익현 지부장은 “이번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통해 돼지고기 수출부위 소비 촉진과 함께 부위별 요리법 등을 홍보하여 국내 돈육 소비경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소비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야유회나 견학 등을 통해 회원들간의 정을 쌓는 지부

영주지부는 탄탄한 조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중 2회 정도의 야유회나 단합대회를 마련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지난 5월 19일에는 부부동반으로 춘천에 있는 ‘아침 고요 수목원’을 다녀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지난 7월 4일에는 회원들과 함께 200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견학을 함으로써 양돈에 필요한 정



▲영주지부는 영주시 후원아래 지난 4월 30일에는 영주 중앙통 오거리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보도 얻고, 의견교환도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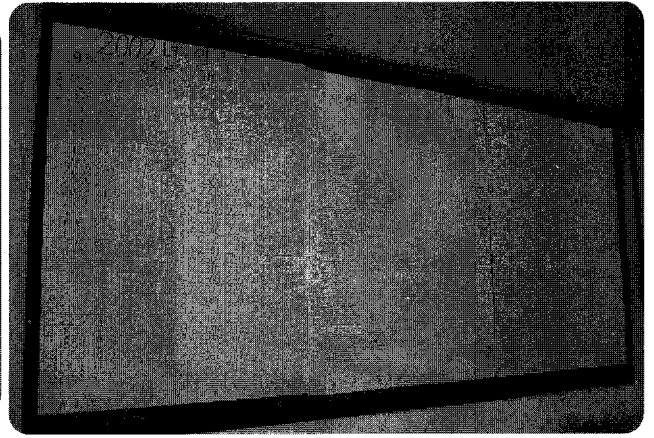
또한 영주지부에서는 회원 부인들의 생일 때 샴페인, 케이크 등을 배달하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하여 회원들 못지 않게 고생하고 있는 부인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감싸안아 줄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회원들간의 정을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

2003년부터 전국시세 적용으로 양돈농가에 혜택 제공

영주지부는 봉화, 예천, 안동지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2003년부터 전국시세를 적용해 오



▲본회는 1999년 5월 제1검정부의 능력검정한 우수종돈을 많은 두수를 구입함으로써 종돈개량에 기여한 공이 큰 영주지부에 상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영주지부는 봉화, 예천, 안동지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2003년부터 전국시세를 적용해 오고 있다. 또한, 영주지부에서는 매일 오전에 ARS 전화를 통해 전국시세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고 있다. 김익현 지부장은 “영주지부는 도드람 양돈조합 등 주변 2개 도축장에 전국시세로 출하하고 있으며, 전국시세로만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회원들 뿐 아니라 지역 양돈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주지부에서는 매일 오전에 ARS 전화를 통해 전국시세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시청과 연계한 분뇨처리 지원사업 추진

김익현 지부장은 양돈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분뇨처리를 꼽았다. 김 지부장은 “현재 영주지부 회원들은 퇴비화 시설로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개개인이 해결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시와 연계하여 액비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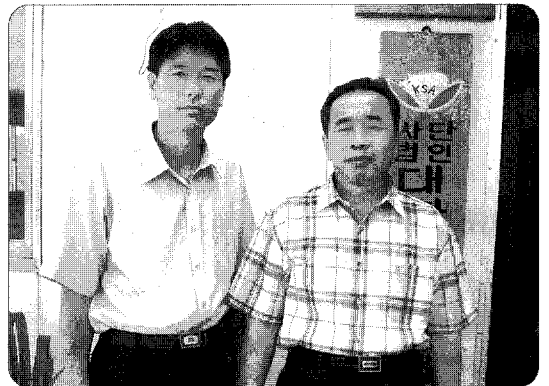
현재 영주지부는 시청과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액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축분비료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분뇨수거차 3.5톤짜리 3대와 살포장비 6대를 준비하여 경종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화사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질병차단과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김 지부장은 “2002년 12월까지의 사무실 내에 공동방역사업단 방역요원이 있어 채혈, 소독 등의 작업을 하였다.”고 말했다. 현재 영주지부는 방역교육을 통해 개개인이 철저히 소독을 해 나가도록 돕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돼지콜레라 발생 때는 100만



▲영주지부 김익현 지부장(우측)과 심병철 총무



▲영주지부는 양돈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회원 서로간에 정을 쌓아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부의 검정돈을 구입함으로써 자체적인 종돈개량에 힘썼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는 1999년 5월 능력검정한 우수종돈을 많은 두수를 구입함으로써 종돈개량에 기여한 공이 큰 영주지부에 상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양돈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단합된 힘을 발휘하고 적극 협조해야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부 자체사업으로 약품과 인력을 준비해 놓고 바로 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김 지부장은 “특히 영주지부의 경우에는 충청도 이북의 종돈과 후보돈은 구입하지 않도록 결의하였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 결과 회원 중에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주지부는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김 지부장은 “1998년도에는 본회 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

김 지부장은 “교체모돈 사업이나 자조금 사업 등 협회에서 추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며,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해 나가면 협회 역시 큰 힘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생산자에게 이익이 환원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부장은 “회원들이 단결된 힘을 발휘하여 양돈인들의 권익신장을 이루어 내고, 양돈을 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돈**

본지 캠페인

~~비선호 · 버리기 부위~~



“수출부위”